

섬유 중의 다이아몬드 모헤어

모헤어 루프 컷트 샤기라던가 키드 모헤어세프가공 등을 한 모헤어는 양골라 산양의 털이다. 모헤어는 백색으로써 견을 상회하는 광택과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파이버라고도 한다. 모헤어에는 키드, 영, 어덜트의 3종이 있다. 옷감으로 키드(어린 산양)라던가 영이 사용되고 있다. 키드는 가늘고 부드러우며 광택이 있기 때문에 최고급 원료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어덜트는 수편사라던가 벨루어에 사용되기도 한다. 튼튼하기 때문에 의자 덮개라던가 카펫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모헤어는 흡습성도 있고 하리도 있기 때문에 상쾌한 감을 갖는다. 그 외에 매끈한 광택이 있어 여름용 슈트의 최상의 고급옷감이 된다. 폴라라던가 팜피스 오리지널은 모헤어 소모사를 경위사로 사용한 것이다. 겨울용 코트지으로써 진면과 같이 가볍고 따뜻한 점이 좋다. 그래서 샤기와 같이 헤어리한 옷감이 된다. 모헤어는 펠트화하지 않기도 하고 색상을 자유롭게 염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하기 쉽다. 모헤어의 털의 표면은 매끈매끈하여 평활성이 좋다. 그것은 장점도 되지만 약점도 된다. 활탈하기 쉬워서 결국은 울이 무너지기 쉽다. 착용이나 취급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헤어와 양모를 혼방한 방모사는 니트용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한다. 혼방한 소모사도 있어 슈트지로 사용한다.

* 모헤어(mohair): 양골라 산양에서 채취한 모섬유 또는 그것으로 짠 직물
양골라 산양은 터키의 수도 앙칼라를 중심으로 2,000여년 전부터 사육되어 왔으며, 19세기 중엽에 남아프리카연방,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수입하여 그 생산지가 되었다. 산양모 중에서 최고급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비단과 같은 광택이 있고 섬유가 길며 촉감이 매끄럽다. 반면에 때가 잘 타며 권축이 적다는 결점도 있다. 터키산이 가장 품질이 좋으며 광택도 우수하다. 화학적 조성은 양모와 거의 같으나 황의 함유량이 적은 점이 다르다. 용도로

서는 모포, 견장, 오버코트감, 고급 여성옷감, 여름옷감, 고급 비로드감 등에 쓰인다.